

초·중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

Parental Authorities Perceived by Children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장혜자·정영숙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교수

Jang, Hye Ja · Chong Young Sook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perceiving extent on father and mother's authority - domain perceived by child and the some materials for bringing up authority - domain in according to the sex and development level of child. The study subjects were children of 3rd elementary schools and 3rd middle schools at Cheong - ju city Chungcheongbuk - do and duration for investigation was from Sept. 24, '97 to Sept. 28, '97. The measuring sample was "Parents' Authority Index" by Kim, Kyeong - hee(1990).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t - test and ANOVA using the SPSSWIN progra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perceptive extent regarding parents' authorities has shown very voluntary differences in identity authority. It has shown voluntary differences legitimacy authority and competency authority as well. 2. In the father's authority - domain based on the child's sex, girl group recognized higher than boy group for the legitimacy authority as a elementary school students. 3. In the father's authority - domain aspect based on child's developing level, for the legitimacy authority boy group showed most voluntary difference. In the mother's authority based on child's developing level, all of boy and girl group recognized highly exchange authority with a voluntary difference. 4. In concerning the correlation of each authority - domains to father and mother perceived by children, it was shown the highest within identical real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최초의 인간

관계를 가지며, 성장하는 동안 부모와 형제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어느 사회에서나 가정은 인간교육을 실시하는 최초의 장이며 부모는 자녀를 일차적으로 사회화시키는 주역이다.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아동후기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는 기간이나 이 시기에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녀의 저항과 공격행동에 대하여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여 설득시켜야 하는 정도까지 성숙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를 권위, 힘, 자애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양육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은 점차 개인관계, 집단간 상호관계, 정서적 적용, 지도력, 사회적 역할, 의사소통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 영역의 구성요소를 확대하여 생활해 나간다.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권위라는 사회관계의 경험적 지식을 개념화하고, 사회적 위계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사회적 인간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자녀에게 내면화된다. 이 과정은 부모가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서 자녀에게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행동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해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것이며 자녀가 복종해야 하는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가 명령하는 규칙을 자녀의 입장에서 보고, 부모는 어른으로서 지시를 하는 것으로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화하고 학습시키기 위해 교육시키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Bigner, 1977; 김경희, 1986).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과 저항을 느끼며, 또래와의 관계가 발달하면서 부모권위에 대한 평가능력이 생겨 아동의 마음에 정당하다는 원칙이 있어야만 부모를 존중하여 자발적인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다(White, 1959).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잠재변인(potential variables)으로 부모 권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작용하여 그 영향력을 크게 한다고 하였다(김경희, 1992).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인성이 결정지어지기도 한다. 부모가 아동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보다 아동이 부모로부터 권위를 지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내세우는 권력이나 독재적인 행동방식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

용으로 부모의 권위를 내면화하여 부모의 말씀에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조사한 연구들(Piaget, 1965; Youniss, 1980; Damon, 1977; Turiel, 1978; Tisak, 1986; 권혁선, 1987; 김경희, 1987, 1991)에서는 부모권위가 아동의 인지구조 발달에 따라 변화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소수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동의 성 및 발달수준에 따른 부모의 올바른 자녀양육과 지도는 현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필요성을 갖는다. 민주적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성장시킴으로서 부모의 권위가 아동에게 주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알아보고, 성 및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므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권위를 아동이 바르게 지각하게 하며 자녀양육과 지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에 대한 지각도는 어떠한가?
- 2) 아동의 성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에는 차이가 있는가?
- 3)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에는 차이가 있는가?
- 4)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권위

1) 권위의 개념

가족은 부모라는 권위적인 지위와 자녀라는 복종적인 지위관계가 성립되는 하나의 사회집단으로서, 역할수행에 있어 부모는 자녀에게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지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개인간의 권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도록 하거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능력이다. 또한 권위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영향을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특별한 성질을 갖는다(Raven, 1965). 이러한 권위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이 접근하게 될 다양한 종류의 힘과 힘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다른 결과에 관한 유형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부모권위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모권위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서 부모권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렸다(김경희, 1991). 즉, 부모권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행동을 명령, 지시,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지니는 것으로서, 부모의 책임과 자녀에 대한 의무수행, 부모의 역량, 부모에 대한 존경, 사랑,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 등에 관한 아동의 평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 하였다.

2) 권위의 유형

부모권위를 형성시키는 결정요인은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정보지각과 정보처리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지각요인에 따라 교환적 권위, 합법적 권위, 일체적 권위, 역량적 권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김경희, 1991).

(1) 교환적 권위(Exchange Authority)

교환적 권위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응할 경우 부모가 보상을 해 주는 것뿐 아니라, 자녀가 순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권위는 가정에서의 속성으로 타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원하는 한 가족원을 관련시키는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과정이다. 가족안에서 권위의 원천은 어떤 가족원이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를 통제할 기회를 증가시켜 주는 자원으로, 보상과 관련되며 권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처벌을 피하는 것, 긍정적인 관계를 다지는 것,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것, 명확하게 정의된 규정 속에서 지내는 것, 타인과 동일시 하는 것, 설득당하는 것, 타인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등이 보상될 수 있다. 또한 권위는 무엇이 옳다거나 바르다는 것을 규정하는 수단이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에 두 가지로 유형이 나뉘어 합리적 권위체제와 전통적인 권위체제로 구별될 수 있다(Weber, 1947). 그리고 가족들 사이의 권위는 체계적 속성으로서 부부간의 권위, 부모의 권위, 자녀의 권위, 형제자매의 권위, 친척의 권위로 나누어 지기도 한다(MacDonald, 1980).

자녀의 순응행동과 관련된 연구(Bar-tal, 1976; Mussen, 1969)에 따라 연령이 어릴수록 보상의 약속 또는 처벌의 위협이 있을 때, 그리고 권위의 명령이 있을 때 순응하고, 연령이 많아지면 도덕적 신념에 의한 자발적인 순응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응하면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을 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응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를 벌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교환적 권위(exchange authority)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부모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과 순응의 교환에 따른 교환적 차원의 권리를 형성한다.

Furth(1978)는 권위가 '부모의 명령에 대한 자녀의 순응행동'이라 하였다. 가족간의 지위와 관련하여 부모가 정한 규칙에 따라 아동 역할을 행동해야 하는 문제라 하였다. 이에 교환적 권위를 형성시키는 하위변인으로 물리적, 심리적 보상과 처벌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김경희, 1990).

(2) 합법적 권위(Legitimacy Authority)

합법적 권위는 부모가 자녀에게 순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녀가 이에 순응할 의무를 지각하는 것이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권위의 합법성을 조사한 연구들(Damon, 1977; Turiel, 1978; Tisak, 1986; 김경희, 1987, 1990)에서는 부모권위의 합법성과 아동의 순응이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부모권위의 합법성을 수용한 아동이 수용하지 않은 아동보다 순응행동이 많다는 것을 제시하여 부모권위의 합법성을 강조하였다.

권위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아동이 깨닫지 못하는 사회의 가치를 아동에게 가르치는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치있는 것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권위라고 하였다(Schein, 1977; Youniss, 1978; Robbins, 1979).

Piaget는 부모가 정한 규칙명령과 아동의 상황에 대해 추론을 하기 위해 6세에서 14세까지 아동에게 개방적 질문을 하였다. 연령이 적은 6세에서 8세의 아동들은 권위의 합법성과 순응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세에서 11세의 아동들은 명령이 정당하지 못하면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가 도덕적 자율성이 발달하는 과도기로 설명하였다(Piaget, 1965).

합법적 권위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차원으로 가족구조에서 부모의 지위로 인해 형성되는 것이다(김경희, 1990). 권위가 정한 규칙을 수용하고 순응의 근거를 합법성에 두는 것을 합법적 권위(ligitimacy authority)라 하였다(Simon, 1967).

4세에서 10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남의 물건을 훔쳐오라는 부모의 요구에 대한 아동의 순응행동을 조사하였는데, 대상 아동 모두 부모권

위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순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자기 방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가 볼 수 없다고 정한 부모권위는 합법성을 인정하였다(Damon, 1977).

연령이 적은 아동들은 권위의 합법성과 관련 없이 무조건 순응하여야 한다고 평가하였고 연령이 많은 아동들은 합법적이지 않으면 순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isak, 1986).

부모의 권위는 사회의 질서있는 행동양식을 가르치는 지도력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알지 못하는 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가르치는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합법적 권위를 형성시키는 하위변인으로 권리, 의무, 책임, 지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경희, 1990)

(3) 일체적 권위(Identity Authority)

일체적 권위는 자녀가 부모에게 동일시를 느끼며 순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동이 대인관계를 통해 획득하는 좋아함과 싫어함에 관한 인지구조는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념적 차원이라고 하였다(Stotland & Canon, 1972). 부모의 애정과 승인에 대한 욕구와 친밀감이 자녀의 행동동기로 작용한다고 하며,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의 애정과 승인을 원하고 있고,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잃는데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순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Sears, Maccoby & Levin, 1957; Shantz, 1975; Staub, 1978). 부모 - 자녀관계는 사랑과 존경으로 동일시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에 대한 애정, 선호등의 감정 상태가 권위로 작용하면 일체적 차원의 권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일시는 한 개인이 자신을 상대방과 유사하게 보고 그 지위를 수용할 때 권위의 원천으로 작용한다(Raven et, al., 1975).

아버지, 어머니, 아들 3인 가정의 연구(Strodtbeck, 1951 : 유계숙, 1988)에서는 아동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머니와 같은 정도의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가장 많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부모와 동일시한다는 것이 한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청소년들은 아버지가 더 많은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청소년은 동성의 부모를 더 많이 동일시하여 권위에 대한 동맹을 형성한다. 딸의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합법적인 권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때는 아버지와 더 동일시하였다. 아들은 어머니가 결과를 통제하고 준거적 권위를 가지는 정도만큼만 어머니와 동일시하였다고 한다(MacDonald, 1980).

부모에 대한 동일시는 부모에 대한 순응을 근거로 작용하며, 동일시 과정에서 부모와의 일체감(identity)을 형성한다(Simon, 1967; 김경희, 1991).

동일시가 권위와 관련된 연구(Sears, Maccoby & Levin, 1957; Shantz, 1975; Staub, 1978)들에서는 부모의 애정과 승인에의 욕구와 친밀감이 자녀의 행동동기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잃는데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순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

일체적 권위를 형성시키는 하위변인으로 선호, 애정, 은혜, 충고등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김경희, 1990).

(4) 역량적 권위(Competency Authority)

역량적 권위는 부모가 갖는 지식이나 정보에 의존으로 인지가 형성되는 것이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가 알지 못하는 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가르치는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며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의 질서있는 행동양식을 가르치는 지도력이며, 한 쪽이나 양쪽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를 가하는 능력이라 하였다(MacDonald, 1979).

아동의 사회 인지 발달 과정에 따라 부모의 권위를 분석한 Damon(1977)과 김경희(1990)의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부모의 능력과 재능을 인지하여 자신을 지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분으로 생각하였고, 또한 부모의 지도력에 대한 존경을 부모에게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역량이 개인적 힘으로 작용하여 부모권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성 또는 지식은 다른 가족원이 자신보다 어떤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 권위의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Raven et al, 1975).

부모의 지식, 능력 등의 요인이 부모의 개인적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며, 아동이 부모의 과거 업적, 전문능력, 사회적 지위, 지도력, 판단능력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존경심을 갖게 되면 부모권위의 내면화가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Heider, 1958; Smith, 1970).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행동방식을 교육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지시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부모의 교육이 합리적일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복종하게 된다. 성인은 사회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가족 체계에서 부모이므로 그가 부모로서 의무를 다 수행할 때 권위가 생긴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역량으로 자발적인 순응행동을 보이는 역량적 권위에서는 하위변인으로 능력, 지식, 판단력, 존경 등의 요인을 포함시키고 있다(김경희, 1990)

2. 아동의 성, 발달수준과 부모의 권위

아동은 사회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체체내의 역할을 구분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 있어 Bronfenbrenner(1961)는 자녀의 성에 따라 애정과 권위에 있어 최적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조만선(1996)의 연구에서는 성에 있어서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성격특성에서 남향성과 정서적 차원간에, 충동성과 권위적 지시차원에 각각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지역에 있어서 농촌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남향성과 보호적 차원간에 부적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Cox(1970)는 청소년 연구에서 소년보다 소녀가 아버지보다 아버지를 더 애정적, 덜 거부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소녀의 아버지가 소년의 아버지 보다 스스

로 더 애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 권위와 관련하여 성 역할 이론을 부분적으로 입증한 연구(Bigner, 1979; Staub, 1978)에서는 남, 녀 모두 아버지를 권위적으로 지각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더욱 권위적으로 지각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어머니에 대한 딸의 동일시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차별적 사회화에 관한 Block(1983)의 연구에서 부모 모두, 남아에게 성취와 경쟁을 강조하며 특히 아버지는 남아에게 더욱 권위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Zussman(1978)은 남아는 여아보다 심한 훈육이나 체벌을 받고, 여아의 경우는 합리적인 통제를 받는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권위는 아들과 딸에게 다같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Lynn, 1974), 어머니의 통제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taub, 1978; Bigner, 1979). 남아는 아버지를 더욱 권위적으로 지각하고, 여아는 부모 평등형으로 지각하였다(Elder, 1964).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자녀의 순응행동과 관련된 연구(Bar-tal, 1976; Mussen, 1969)를 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보상의 약속 또는 처벌의 위협이 있을 때, 그리고 권위의 명령이 있을 때 순응하고, 연령이 많아지면 도덕적 신념에 의한 자발적인 순응이 나타난다고 한다.

Piaget(1965)는 부모가 정한 규칙명령과 아동의 상황에 대해 추론을 하기 위해 6세에서 14세까지 아동에게 개방적 질문을 하였다. 연령이 적은 6세에서 8세의 아동들은 권위의 합법성과 순응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세에서 11세의 아동들은 명령이 정당하지 못하면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경향을 보였다. Piaget는 이 시기가 도덕적 자율성이 발달하는 과도기로 설명하였다. 11세에서 14세의 아동들은 권위명령의 합법성 여부에 관하여 명령하는 사람의 연령, 자신과의 친밀감, 애정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하였다.

Youniss(1980)는 6세에서 13세 까지를 대상으로 순응행동에 대한 추론을 조사하여 연령이 적을 수록 부모가 명령할 때만 순응하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연령이 많은 아동들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행동, 권위의 내면화가 이루어짐을 시사하였다. Tisak(1986)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적은 아동들은 권위의 합법성과 관련없이 무조건 순응하여야 한다고 평가하였고, 연령이 많은 아동들은 합법적이지 않으면 순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th(1970)는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권위가 크면 클수록 부모의 통제에 대한 자녀의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경희(1987)의 연구에서는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판단개념은 규칙의 내용 즉 벌의 당연, 권위존재, 개인의 발달등에서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인지가 연령에 따라 역량적 권위와 일체적 권위는 11세, 14세에 차이가 있으며, 합법적 권위는 모든 연령에서 차이가 있고, 8세, 11세, 14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1991). 연령이 적은 아동들은 부모의 권위는 당연히 정당하며 복종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연령이 많은 아동들은 부모의 요구에 따라 권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비록 정당하지 않은 요구라 하여도 복종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김경희(1991)의 연구결과는 국외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국외의 아동들보다 부모를 더 권위있게 지각하며 부모와 수직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권위와 아동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아동의 성 및 아동의 발달수준이 부모권위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대전시와 청주시의 초

〈표 1〉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에 대한 지각도

N=569

권위차원	변인	M (SD)	t-값
교환적 권위	아버지	3.29 (1.01)	.36
	어머니	3.27 (.36)	
합법적 권위	아버지	2.61 (1.14)	2.74**
	어머니	2.47 (.97)	
일체적 권위	아버지	2.46 (1.15)	4.34***
	어머니	2.23 (.97)	
역량적 권위	아버지	2.52 (1.07)	2.26*
	어머니	2.41 (.89)	

* P<.05 ** P<.01 *** P<.001

등학생 5학년과 중학생 1학년 50명을 대상으로 1997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하였으며, 본조사는 청주시와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3개교와 중학교 1학년 3개교를 선정하여 1997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실시방법은 초등학생은 본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내용을 설명한 후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였으며, 중학생은 담임선생님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초등학생이 279명(남 147명, 여 132명)으로 49.2%이었으며 중학생이 288명(남 119명, 여 169명)으로 50.8%이었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성별로는 남학생 46.91%, 여학생 53.09%이었다. 질문지는 총 603부를 배부하여 594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8.50%). 그 중 응답이 부실한 것과 편부 및 편모가정의 질문지 25부를 제외하고 총 569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회수율 94.36%).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아동의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77.8%이었고, 자녀의 수는 2자녀가 56.2%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인 경우(아버지 50.5%, 어머니 54.3%)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아버지 직업은 전문직/관리직이 43.6%,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기타가 51.9%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권위는 김경희(1990)가 제작한 부모의 권위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 권위차원은 교환적 권위 8문항, 합법적 권위 9문항, 일체적 권위 8문항, 역량적 권위 7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척도는 Likert형 평정방법에 따라 항상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가끔 그렇다에 3점을,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배점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교환적 권위가 .88, 합법적 권위가 .92, 일체적 권위가 .86, 역량적 권위가 .85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전체 권위의 신뢰도는 .91, 어머니의 전체 권위는 .87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α 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별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에 대한 지각도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t test를 실시하였고, 아동의 성 및 발달수준에 따른 권위차원을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증은 LSD Test를 실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에 대한 지각도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에 대하여 지각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권위차원의 하위 영역별로 알아본 결과는 <표 1> 과 같다.

권위차원에 따른 지각도에서 일체적 권위에서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애정이나 은혜, 선호 및 충고에 있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합법적 권위와 역량적 권위에서도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환적 권위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바, 이는 아동들이 부모에게 순응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거나 순응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아동의 성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 차원의 차이

아동의 성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에 대한 지각하는 차이는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집단에서 성에 따른 아버지의 권위차원을 보면 합법적 권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교환적 권위, 일체적 권위, 역량적 권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교 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일체적 권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환적 권위, 합법적 권위, 역량적 권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ox(1970)의 연구에서 소녀가 소년보다 아버지

<표 2> 아동의 성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의 차이

부모	변인	초등학교 (N=271)		중학교 (N=281)		계 (N=555)		
		M(SD)	t-값	M(SD)	t-값	M(SD)	t-값	
아버지	교환적 권위	남	3.14 (1.08)	-.24	3.40 (.94)	-.15	3.28 (1.02)	-.31
		여	3.17 (1.06)		3.42 (.97)		3.30 (1.02)	
	합법적 권위	남	2.27 (1.27)	-2.34*	2.77 (1.07)	-.08	2.51 (1.19)	-2.08*
		여	2.62 (1.22)		2.78 (.92)		2.71 (1.08)	
	일체적 권위	남	2.54 (1.46)	.57	2.32 (.80)	-2.02*	2.44 (1.19)	-.57
		여	2.45 (1.26)		2.54 (.99)		2.50 (1.12)	
	역량적 권위	남	2.37 (1.15)	-1.36	2.60 (.94)	.09	2.47 (1.06)	-1.16
		여	2.57 (1.27)		2.59 (.90)		2.58 (1.09)	
어머니	교환적 권위	남	3.03 (.86)	-.64	3.70 (.73)	.10	3.24 (.83)	-.70
		여	3.10 (.94)		3.46 (.80)		3.29 (.88)	
	합법적 권위	남	2.21 (1.10)	-2.08*	2.61 (.94)	.51	2.40 (1.04)	-1.51
		여	2.48 (1.04)		2.56 (.74)		2.52 (.90)	
	일체적 권위	남	2.10 (1.11)	-.55	2.37 (.86)	.53	2.22 (1.02)	-.27
		여	2.17 (1.06)		2.31 (.84)		2.25 (.95)	
	역량적 권위	남	2.37 (.97)	1.11	2.54 (.74)	.92	2.46 (.86)	1.41
		여	2.24 (1.01)		2.46 (.81)		2.35 (.91)	

* P<.05

〈표 3〉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의 차이

부모	변인		남(N=258)		여(N=294)		계(N=566)	
			M(SD)	t-값	M(SD)	t-값	M(SD)	t-값
아버지	교환적권위	초등학교	3.14(1.08)	-2.06*	3.17(1.06)	-2.07*	3.18(1.06)	-2.49*
		중학교	3.40(.95)		3.42(.97)		3.40(.98)	
	합법적권위	초등학교	2.27(1.27)	-3.47***	2.62(1.23)	-1.27	2.45(1.25)	-3.34***
		중학교	2.77(1.07)		2.78(.93)		2.77(1.00)	
	일체적권위	초등학교	2.54(1.46)	1.49	2.45(1.26)	-.73	2.48(1.35)	.38
		중학교	2.32(.81)		2.54(.99)		2.44(.92)	
	역량적권위	초등학교	2.37(.97)	1.71	2.57(1.27)	-.12	2.46(1.20)	-1.48
		중학교	2.60(.94)		2.59(.90)		2.59(.92)	
어머니	교환적권위	초등학교	3.03(.86)	-4.46***	3.10(.94)	-3.61***	3.08(.90)	-5.57***
		중학교	3.47(.73)		3.46(.80)		3.47(.77)	
	합법적권위	초등학교	2.21(1.10)	-3.20**	2.48(1.04)	-.82	2.36(1.08)	-2.79**
		중학교	2.61(.94)		2.56(.74)		2.52(.85)	
	일체적권위	초등학교	2.10(1.11)	-2.17*	2.17(1.06)	-1.29	2.13(1.07)	-2.50*
		중학교	2.37(.86)		2.31(.84)		2.33(.84)	
	역량적권위	초등학교	2.37(.97)	-1.60	2.24(1.01)	-2.07*	2.31(.98)	-2.58**
		중학교	2.54(.74)		2.46(.81)		2.50(.78)	

* P<.05 **P<.01 *** P<.001

를 더 애정적, 덜 거부적으로 지각하고, 소녀의 아버지가 소년의 아버지보다 스스로 더 애정적이라고 지각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당연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아버지의 합법적 권위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의 책임이나 권리, 의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녀 아동의 성차가 나타난 것은 부모들의 딸과 아들에 대한 기대와 태도가 다르고, 남아와 여아에게 각기 다른 양육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Frisch, 1978 : 김경희, 1990 재인용).

초등학교 집단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권위차원을 보면 어머니의 합법적 권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지각하여 성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교환적, 일체적, 역량적 권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중학교 집단에서는 각 권위차원에서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하위영역의 권위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어머니의 권위차원에서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권위차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권위를 높게 지각한 결과는 부모권위와 관련한 성역할 이론을 부분적으로 입증한 연구(Bigner, 1979; Staub, 1978)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권위지각을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지각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딸의 동일시를 보여 주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3.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의 차이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의 차이를 본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권위차원에서 남학생은 합법적 권위에서 중학생이 초등

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발달단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학생은 아버지의 교환적 권위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따라서 발달단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버지 권위에 대한 체벌이나 보상을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합법적, 일체적, 역량적 권위에서는 남녀 집단 모두 연령이 증가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비교적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중학교 집단이 초등학생 집단보다 아버지의 책임과 권리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응하지 않았을 때 체벌이나 이에 대한 보상의 당연성을 지각하는 교환적 권위에서 더 높게 지각하였다.

연령이 적은 아동들은 권위의 합법성과 관련 없이 무조건 순응한다고 평가하고, 연령이 많은 아동들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행동, 권위의 내면화가 이루어짐을 시사한 연구 결과(Tisak, 1986; Youniss, 1976)처럼 부모 권위에 대한 지각은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권위차원에서 교환적, 합법적, 일체적 권위에서 남학생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어머니의 교환적, 역량적 권위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부모에게 순응할 경우 심리적 보상이나 물

질적 보상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순응하지 않았을 때 체벌이나 권리박탈을 할 수 있다는 교환적 권위를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어머니의 지식이나 능력, 존경심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희(1990)의 연구에서는 역량적 권위와 일체적 권위는 11세와 14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권위차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합법적 권위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은 연령이 높은 아동들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 권리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권위차원 모두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간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버지의 권위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교환적 권위는 다른 권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합법적 권위는 일체적 권위, 역량적 권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아버지의 합법적 권위가 높게 인식될 수록 일체적 권위와 역량적 권위도 높게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일체적 권위와 역량적 권위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아버지 권위중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았다. 아버지의 교환적 권위는 어

<표 4>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간의 상관관계

변인	아버지				어머니			
	교환적 권위	합법적 권위	일체적 권위	역량적 권위	교환적 권위	합법적 권위	일체적 권위	역량적 권위
부: 교환적권위	1.00							
합법적권위	.07							
일체적권위	-.00	.17***						
역량적권위	.02	.13**	.21***					
모: 교환적권위	.22**	.08	-.05	.08*				
합법적권위	.01	.41***	.19***	.12**	.09*			
일체적권위	.02	.18***	.26***	.09*	.12**	.17***		
역량적권위	-.05	-.01	.15***	.25***	.06	.04	.16***	1.00

* P<.05 ** P<.01 *** P<.001

머니의 교환적 권위의 다른 권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반면 아버지의 역량적 권위는 어머니의 모든 권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합법적 권위와 어머니의 일체적 권위, 아버지의 일체적 권위와 어머니의 합법적 권위, 역량적 권위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권위간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아버지와는 달리 교환적, 합법적, 일체적 권위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의 교환적 권위가 높을수록 합법적, 일체적 권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합법적 권위와, 일체적 권위, 일체적 권위와 역량적 권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 권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차원의 권위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합법적 권위에서 높은 상관을 보여 아버지의 합법적 권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합법적 권위도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유지를 위해서는 부부간 권위유지에 서로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연구문제의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권위차원과 어머니의 권위차원에 대한 지각도는 일체적 권위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애정이나 은혜, 충고 및 선호함으로서 높게 지각하였으며, 합법적 권위와 역량적 권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부모 모두 교환적 권위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부모에게 순응하지 않았을 때 체벌이나 권리박탈을 하는 것과 자녀가 순응하였을 때 심리적 또는 물질적 보상을 하는 교환적 권위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에 따라 아버지 권위차원의

합법적 권위차원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며, 일체적 권위차원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 하였음을 나타내었다. 성에 따른 차이는 아버지의 합법적 권위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합법적 권위차원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다른 권위차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권위차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대체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은 Stab(1978)과 Bigner(197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여학생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은 사춘기로 접어드는 연령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남아가 여아보다 권위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Elder, 1963; Smith, 1970; 김경희, 1990)도 있다.

셋째,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합법적 권위차원에서 남학생의 경우,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교환적 권위차원에서도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교환적 권위차원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전체학생에서 보면 어머니의 교환적, 합법적, 일체적, 역량적 권위의 모든 영역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많은 아동들이 적은 아동보다 부모의 능력에 대한 존경, 애정, 충고 등에 의하여 부모의 권위를 인지한다는 Damon(1977)의 연구결과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부모권위를 판단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Piaget(196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발달수준에 따라 합법적 권위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음은 김경희(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상이나 체벌을 가하는 것에 있어서 연령이 높은 집단의 자녀는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 차원간의 관계를 보면 동일한 하위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부부관계는 권위에 있어서도 서로가 영향을 주어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에 대하여 비슷하게 지각하여 각 하위영역에서의 상호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과제 및 연구방향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며 발달수준별 차이를 보인바, 연구대상의 연령범위를 청소년기까지 확대하여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차원에 관련된 연구가 적은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차원이 아동의 사회성발달과 인성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수경(1995).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혁선(1987).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와 유아의 도덕판단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경희(1986).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1987).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연구. 아동학회지, 8(2), 45 - 50.
- 김경희(1990). 아동의 부모권위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Damon의 권위개념 단계에 따른 분석. 아동학회지, 11(1), 15 - 28.
- 김경희(1991). 부모 권위척도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1991). 부모의 권위척도 개발연구. 아동 연구, 6.
- 김경희(1992). 부모권위척도와 준거변인의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12(2), 130 - 145.
- 김경희(1992). 아동이 지각한 부모권위와 부모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0(1), 339-348.
- 김경희 (1996).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의 권위, 통제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3), 187-197.
- 김홍규 (1994). 신생활지도론. 서울: 형성출판사, 259 - 268.
- 노영주, 서동인, 원효종 역(1995).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응집성과 변화): 하우출판사. 18 7 - 215
- 이은죽 (1977). 한국 가족의 부부간 권위관계에 대한 유형적 접근. 한국사회학, 11, 95 - 107.
- 조만선 (1996). 어머니의 성격형성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경성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영란 (1992). 아동의 나이, 행동, 어머니의 권 위주의적인 양육태도가 귀인가정을 통해 훈육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ldwin, A. (1989).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nursery 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20, 48-61.
- Bar - tal, D. (1976). Physical Attract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Sex-Role Stereotyping. *Sex Roles*, 2(2), 123-133.
- Baumrind, D. (1967). Effect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887-907.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Dick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7,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3-46.
- Bigner, I. J. (1979). *Parent-child relation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o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o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 - 1354.
- Bronfenbrenner, U. (1961). Toward a theoretical mold for the analysi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a social context, *Parental Attitude and Child Behavior*, In J. C. Glidewell,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s. Inc.
- Cromwell, R. E., & David H. Olsen, eds(1975). *Power in Families*. New York: Halsted Press.
- Cox, F. N. (1970). Assessing some aspects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32, 637-649.
- Damon, W. (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Damon, W. (1980). Patterns of change in children's social reasoning: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51, 1010 - 1017.
- Elder, G. H. (1964). Parental power legitimation and its effect on the adolescent. *Sociometry*, 26, 50 - 65.
- Furth, H. G. (1978). Children's social understanding and the process of equilibration.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1, 101-123. Jossey Bass Inc.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Lynn, D. B. (1974). *The father: his role in child development*. California: Brooks Cole Pub, Co.
- Maccoby, E & Jaklin, C.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 MacDonald, G. W. (1980). Parental Power and adolescents Parental identification: A reexamination, *Journal of Married the Family*, 42, 289-296.
- Mussen, P. H. (1969). *Early sex-role development*. In D. A. Goslin(ed).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child(translated by M. Gavain)*. New York: The Free Press.
- Raven, B. H. & Kruglanski, A. W. (1975). Conflict and Power, In P. Swingle(ed.), *The Structure of Conflict*. New York: Academic Press.
- Robbins, S. P. (1979). *Organizational behavior*. N, J.: Prentice - Hall.
- Schein, V. E. (1977). Individual power and political behavior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 64 - 72.
- Sear, R. R., Maccoby, E, E., & Leven, H. (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Evanston, 11.: Row, Peterson.
- Shantz, C. U. (1975).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on. In E. M.

- Hetherington(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mon, H. A. (1967).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The Free press.
- Smith, T. E. (1970). Function of parental influence upon adolescents: an application of social power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860 - 873.
- Staub, E. (1978). Socialization by parents and peers and experiential learning of prosocial behavior. In J. H. Stevens & M. Mathewes.(eds). *Mother - Child, Father - Child relationships*. Washington D, C: NAEYC.
- Steinberg, L., Elmen, J., & Mounts, N.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 - 1436.
- Stotland, E., & Camon, L. K.(1972). *Social Psychology, a cognitive approach*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 Tisak, M, S. (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 166 - 176.
- Truiel, E. (1978). Social relations and domains of social concepts.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1, 45 - 74. Jossey - Bass.
- Weber, M.(1947). *Theory of economic and social organization*. London. Hodge.
- White, R. C.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 - 333.
- Youniss, J. (1978). *Parent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 a Sullivan - Piaget perspective*.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 Zussman, J. V. (1978). Relationship of demographic factors to parental discipline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4, 685-686.